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 태국 교통부와 도로교통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-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태국 도로사업 수주 활성화 기대 -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1일 싹싸얌 치드쑤(Saksayam Chidchob) 태국 교통부 장관을 만나 한-태국 도로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로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인프라 외교 활동을 추진하였다.

○ 양해각서에 따르면 방콕 사턴-방나 터널 사업, 방콕 도심지 교통 개선 사업 등 6개 협력사업*(약 2조원 규모) 추진과 실질적 성과 사업 연계를 위한 공동협의체** 구성이 명시되어 있다.

* 방콕 사턴-방나 터널 사업, 도심지 교통개선 사업,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, 휴게소 개발 사업, 교통센터 구축, 도시간 고속도로 개발 사업

** 양국 도로국장을 의장으로 개별 협력사업에 대한 의사결정, 실행계획 및 추가 사업 발굴 등을 수행, '20년 상반기 중 구성

□ 또한, ITS분야 전 세계 최대 규모 행사인 ITS 세계총회의 국내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국내기업의 태국 철도사업 진출도 논의하였다.

○ 우리부와 강릉시에서 준비 중인 2025년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개최지 선정 투표권을 갖고 있는 태국측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,

○ 태국 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3개 공항 연결 고속철 사업, 푸켓 경전철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태국 정부의 관심을 요청하였다.

□ 이에, 싹싸얌 치드쑤 태국 교통부장관은 이번 정부간 도로교통 협력이 태국의 도로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, 앞으로 철도를 비롯한 다각적인 인프라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.

□ 김 장관은 “이번 정부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태국 도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.”면서

“앞으로도 정부협력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 수주지원 역할을 하겠다.”
고 밝혔다.

2020. 2. 21.

국토교통부 대변인